

생활 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to the difference of Life Style patter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문숙재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흥성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Associated Prof.; Sook Jae Moon

Dept. of Home Management, Jung Ang Univ.

Instructor; Sung Hee Hong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work to the difference of life style pattern of housewives.

For the purpos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rated to the housewives in Seoul and to analyse of the date, factor analysis, F-test, t-test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By utilizing factor analysis, the life style patterns of housewives were classified into 7 types, they were named, self-improvement type, social activity type, modernistic type, sound and thrifty type, variety-seeking type, passive stability-seeking type, the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type.

And the patterns of life style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ll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except family type.

2. The level of socialization of householdwork was not reaching the medium, and the mean was 19.45.

3.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work were influenced indirectly by the age,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family type and social activity type, variety seeking type, traditional and conservative type of the life style pattern. And directly, the age and educational level influenced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work.

I. 문제의 제기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가치관이 종래의 물질적 생활 지향에서 복지사회 지향, 정신적 생활 지향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가정의 관리에 대한 가치관 또한 변화하고 있다. 가정관리자는 주체성을 갖고 스스로의 생활시스템을 설계하는 생활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정의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생활양식이란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 하에서 나타내는 생활의 양태이며 사회 전체 또는 일부 계층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생활방식으로서, 생활주기 및 가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개인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 방식에 반영된다. 따라서 생활양식이란 생활 과제의 해결 및 충족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¹⁾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은 이러한 생활양식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며, 이러한 가사노동의 생산적 측면은 분리할 수 있는 생산과 분리할 수 없는 생산으로 구분²⁾되는데, 전자의 경우 소득, 시장 조건, 개인적 기호 등과 같은 환경 조건상 가정 외부 인에게의 위임이 가능하다면, 시장 상품이나 유급의 용역으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³⁾ 가족원이 수행하는 대신 타인의 노동력으로 대체시키거나, 상품으로 구입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취업 증가, 가계소득 증대, 가공식품 개발, 서비스 산업 발달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주부들은 식생활 분야의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고 합리화하는 한 방안으로서 식생활 분야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가사노동 사회화의 구체적인 실태는 가사노동의 주 담당자인 주부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가사노동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부의 특성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단일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고려한 복합적인 개념인 생활양식의 개념을 도입하여 주부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뿐 아니라, 생활양식 유형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가사노동 사회화의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가정의 관리 기능 및 가정 생활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양식

1) 생활양식의 개념

Kelly에 의하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예견하고 통제하려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처하는 개념이나 유형을 형성하고, 이러한 개념 및 유형을 사용하여 주변의 사건과 사물들을 해석하고 예측한다.⁴⁾

즉, 인간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단순한 반응자가 아니라, 목표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므로, 과거 생활환경에 대한 대처경험 또는 생활과제의 독자적인 해결방법 및 미래의 목표를 향한 노력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게 되며, 이러한 전체적인 일관성이 생활양식이다.⁵⁾

이러한 생활양식의 개념을 종합적인 의미에서 보면, 체계의 개념으로서, 사회 전체 또는 일부 계층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생활방식⁶⁾이며, 가족에 초점을 두면, 생활양식이란 정형화된 생활방식으로서 가족 성원이 여러가지 상품이나 자원 및 일어날 사건을 가족의 목표에 부합시켜가는 일로서, 소비자의 상품 구입은 생활양식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것이며, 이것은 가족 신념체계의 구체화를 위한 것이다.⁷⁾

한편, Levy는 개인의 생활양식을 다루면서, 생활양식은 많은 생활자원의 조합 또는 개개인의 활동이 암시하는 하위상징(subsymbols)으로부터 합성된 종합적인 상징⁸⁾이라고 하였고, Coleman은 개인의 지각, 사고, 행동의 일관된 방법을 생활양식이라고 하면서, 개개인은 독자적으로 비교적 일관된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경향을 갖는다⁹⁾고 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생활양식의 개념은 개인에서부터

사회 전체에 걸쳐 적용될수 있는 것으로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특징적인 필요와 요구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적인 행동지향적 양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생활양식의 분석 방법

생활양식의 분석은 실증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석 수준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¹⁰⁾

거시적 분석은 사회 전체 또는 특정 부분의 전체적인 생활양식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며, 미시적 분석은 주로 주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심리측정 기법을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욕구유형등을 측정, 분석하여 사회적 경향을 파악,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시적 분석중 AIO 분석방법은 생활양식의 측정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Wilson, Pessemier, Tigert, Wells 등에 의해 개발되어, 소비자의 일상활동, 주변 사물에 대한 흥미, 사회적, 개인적 문제에 대한 의견들을 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생활양식의 분석은 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Plummer는 여기에 AIO를 통합하여, 첫째,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활동. 둘째, 주변 환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 세째,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의견. 네째, 생활주기, 소득, 거주지역과 같은 기본적인 특성들로 이루어지는 다차원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Plummer가 제시한 생활양식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¹¹⁾

여기에서, 활동이란 매체의 시청, 구매, 신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이웃과의 대화등 명백한 행동으로 쉽게 관찰할수 있으며, 관심은 어떤 사물, 사건, 화제에 대해 특별하고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면서 흥미를 갖는 정도이다. 의견은 어떤 질문이 야기되는 자극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인이 제공하는 언어나 문자로된 대답을 뜻하며, 이것은 타인에 대한 믿음,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 행위 결과에 대한 보상 및 처벌등과 같은 해석, 기대, 평가로 기술된

〈표 II-1〉 생활 양식의 영역

활동	관심	의견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	가족	자신	연령
취미	가정	사회문제	육입
사회적사전	직업	정치	수직
휴식	가지역사회	사업	가족수
사교	교례크리에이션	경제제	주거지
회원가입	유행	교육	지역
지역사회활동	음식	상품	거주지역의
구매	체제	미래	규모
스포츠	성취	문화	가족생활주기

(출처 : Joseph T. Plummer,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the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38, 1974, p. 34.)

다.¹²⁾

이러한 생활양식의 영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결합시킨 것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측면뿐 아니라, 감정, 태도, 의견등의 다차원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활양식을 포괄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가사노동의 사회화

1)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개념

가사노동은 가족이 하나의 단위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재화와 용역을 창출해내는 생산성을 갖는다.

가사노동을 가정내 생산으로 본 Reid에 의하면, 가정생산이란 가족구성원에 의해, 가족구성원을 위해 수행되는 무급의 활동으로서, 소득, 시장조건, 개인적 기호등의 환경조건이 가정 외부인에게의 위임을 허락한다면, 시장상품 및 유급의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다¹³⁾고 하여, 가사노동의 대체 가능성은 시사하였다.

한편, Beutler와 Owen은 가정생산 활동 모델에서, 가정생산을 분리할 수 있는 가정생산과 분리할 수 없는 가정생산으로 구분¹⁴⁾ 하였는데, 분리할 수 있는 가정생산은 타인에게 위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원이 수행하는 대신 타인의 노동력으로 대체시

키거나 상품으로 구입하는 등 가정외부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하여 가사노동을 대체시키는 사회화가 가능하다.

이와같은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오늘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에 따라, 상품생산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가사노동의 변동이라 볼수 있다. 즉, Egner는 자급자족의 가계로부터 오늘날의 시장의존적 가계로의 변천에 주목하면서 역사적 흐름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동을 가계내의 생산과정이 끊임없이 가정외적인 영역, 즉, 영리적이고 공적인 부문으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았다.¹⁵⁾

이러한 가사노동 사회화의 발전 형태는 첫째,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해 소비비용, 유통비용으로서, 또는 사적 수단으로서 개별가족에 사적으로 공급되는 형태이고, 둘째, 복수의 개별가족이 분업 협업하여 상호적으로 개별가족의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형태이며, 세째, 사회적, 공공적 소비수단 또는 서비스로서 공공이 공급하는 것이다.¹⁶⁾

이상에서 가사노동 사회화의 가능성 및 발전과정을 통하여 볼때,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 및 용역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가정내의 생산과정이 가정외부의 영리적이고 공적인 부문으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사노동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 조직하여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인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가치관, 가정을 둘러싼 환경의 발전 및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 변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에 대해 문숙재는 사회의 기술,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가정생활의 형태를 자급자족가정, 용역가정, 시장의존가정으로 나누었다. 자급자족가정은 욕구 충족에 필요한 일체의 재화와 용역을 가정에서 생산하고 그 범위내에서 소비하는 형태이고, 용역가정은 가능한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정내에서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해 노동하는 가정이며, 시장의존가정은 욕구 충족을 위한 일체의 기능과 노동을 시장에 이전시키고 자원의 배분만 하는 가정형태이다.¹⁷⁾ 즉, 가사

노동의 형태는 기술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대부분의 작업을 수반한 육체적인 노동에서 점차로 관리, 경영적인 측면인 정신적인 노동으로 변화해가며,¹⁸⁾ 이러한 변화의 맥락속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보편화된 가정생활양식으로 정착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노동 사회화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을 경제적 측면, 가족적 측면, 의식적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① 경제구조의 변화

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분배하는 중요한 단위였던 가족에 변화를 초래하여, 가정에서는 교환을 위한 상품과 사용을 위한 상품을 동시에 생산할 기회가 감소되었다¹⁹⁾. 즉, 산업화에 따라 가사노동을 대체할수 있는 소비재가 대량생산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가계에 공급되므로 많은 가정에서 시장상품에 보다 용이하게 접할수 있고 시장상품이 가계생산품에 비해 비용면에서 유리하므로²⁰⁾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촉진된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가사노동을 대체시키는 재화 및 용역을 구입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별가계 및 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가사노동 사회화를 가능케 하는 여건을 형성해준다.

② 가족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수반되는 중요한 변화인 가족의 변화는 가족 형태 및 가족 규모의 변화, 이에 따른 거주 형태의 변화등으로 나타난다.

즉, 핵가족화, 가족수의 감소등은 가사노동 사회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족구성이 단순하고 가족수가 적은 핵가족의 경우 가사노동을 수행할수 있는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사노동 수행시간의 효용성이 작아지므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편이 유리하다.²¹⁾

또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보다 많은 가계가 소비재의 구매기회에 접하게 되며 도시화에 수반되는 주택난에 따라 주거의 협소함은 자급의 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 집합주택의 경우 거주공

간의 조건이나 소비재 구매 기회등과 같은 환경조건이 재화 및 용역의 시장구입을 불가피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산업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수 있다.

③ 가치관의 변화

사회에 남녀평등사상이 보급되고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사회적 지위 확보 및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게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²³⁾

따라서, 주부의 취업이 증가됨에 따라 노동 또는 시간을 절약시키는 제품이나 용역을 통해 가사노동을 경감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가치관의 변화 및 주부의 사회진출로 인해 부부의 역할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즉 부부관계가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변화되어 주부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가정경영자로서 더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²⁴⁾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가정생활의 간소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생활양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됨으로써 가사노동 사회화가 촉진된다.

이상에서 볼때, 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반이 형성되었고, 여성은 역할 변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가족의 변화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3. 선행연구의 고찰

1) 생활양식에 관한 선행연구

Levy에 의하면, 생활양식은 사회화에 의해 가족, 준거집단으로부터 습득한 가치등의 환경적 변수와 개성, 자아개념등의 심리적 변수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며, 경제적인 영향 역시 생활양식의 표현에 기회를 주거나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로서, Rey-

nolds, Crask, Wells는 현대여성의 성향과 취업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주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통형과 현대형으로 구분한 결과 취업주부가,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전반에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높게 나타났다.²⁵⁾

이 차이는 주부들의 생활양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요인으로, 주부의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예금액, 용돈, 가족수, 가족구성, 가족형태등을 고려하였다.²⁶⁾

마케팅 전략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연구로서, 한인자의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생활양식에 따라 육류구매행동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생활양식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밝혔다.²⁷⁾

또한 오명렬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항목이 광고 및 매스미디어 선택의 결정변수로 작용하였다.²⁸⁾ 즉 소비자 행동의 근간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보다는 사회심리적인 설명변수를 포함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가정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생활양식유형과 구매행동, 소비자 행동등 가정관리행동과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주부의 생활양식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주부의 연령, 학력, 생활주기, 소득, 가족수, 자녀수, 주택유형, 남편의 직업등^{30~33)}으로 나타났으며, 김 경미의 연구 결과 소비자 의식, 소비행동, 구매행동으로 구성된 소비자행동의 상당 부분이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³²⁾ 김 혜연의 연구에서는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의 성향 및 행동유형에 차이가 나타남으로써³³⁾ 가정관리행동 분야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뿐 아니라, 심리적 변수를 포함하는 생활양식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가정관리 분야에서도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생활양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뿐 아니라, 심리적 차원을 도입하여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해주는 복합적인 개념임을 인식할수 있다.

2)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선행연구

가사노동 사회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가사노동 시간에 관한 연구, 가사 분담에 관한 연구, 식생활비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Goebel과 Hennon은 주부의 취업과 가족생활주기, 식사준비시간, 외식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주부의 식사준비 시간과 외식비는 부적인 관계, 주부의 취업 및 막내의 연령과 외식비는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³⁴⁾ 즉, 외식을 통해 식사준비 시간을 감소시키나 외식비는 증가하였다.

Volker등의 식생활비에 관한 조사에서는 가족수가 많은 경우 편의식품 이용이 증가하였으며,³⁵⁾ Bellante와 Foster의 연구 결과, 서비스 이용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입, 교육수준 및 취업 유무로서 취업 주부이고, 수입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 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⁶⁾

가사노동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관련시킨 연구로서 이 영분의 연구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에서 손질된 식품의 구입율, 가공식품 및 주식대용 식품의 이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³⁷⁾ 이 혜옥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공식품 및 즉석식품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³⁸⁾ 장정옥은 가사노동 사회화 경향을 최소의 노력, 시간 및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현대적인 성향이나 실용주의적 의식의 발로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는 주부의 취업, 주택유형, 학력, 수입, 연령 등이 영향을 미쳐, 취업주부이고, 아파트에 거주하며 수입 및 학력이 높을 수록 사회화 경향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³⁹⁾ 또한 앞으로 계속 손질된 식품재료나 반조리 식품 및 완전조리 식품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식생활 분야의 가사노동 사회화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정연주의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가족수, 교육수준, 가계수입, 주택 형태와 사회심리적 변수 중 생활변화에 대한 태도가 사회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사회화를 설명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변수는 가족수와 가계수입으로 나타

나 사회화는 가족수와 가계수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이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⁴⁰⁾

이 기영의 가사노동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속성변수 중 가계소득·가사용품보유도·주부의 학력·취업·연령 및 가족형태·성장지가, 가부장적 규범 변수 중 가정지향성이, 가사노동 관련 인적자원 변수 중 가사노동 중요도와 가사노동수행능력이 의생활과 식생활 분야의 가사노동 상품 대체와 관련 있는 변수였다.⁴¹⁾

이상에서 볼때 가사노동 사회화와 관련된 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서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가족수, 가족형태, 가족생활주기,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주택유형, 가사보조자 유무 등과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으며, 최근에는 이를 종합한 복합적인 개념인 생활양식 유형과 관련 시킨 연구⁴²⁾도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주부들의 생활양식유형의 분석 및 이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의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생활양식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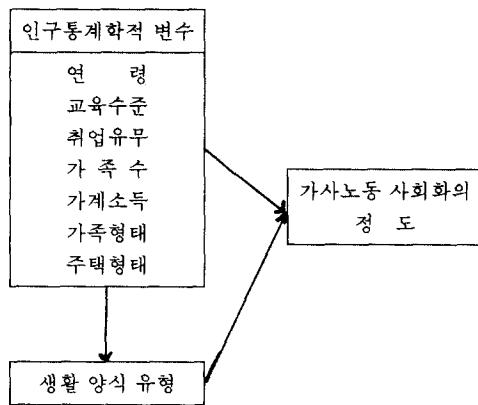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주부들의 생활양식은 어떤 유형을 보이는가?
- 2) 가사노동 사회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 3)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생활양식유형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와같은 연구문제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활양식,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 유무, 가족수, 가족형태, 가계소득, 주택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생활양식

생활양식을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항목은 AIO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AIO 항목은 Plummer의 생활양식의 영역 (Life Style Dimension)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점과 조사대상자가 주부로 국한된 점을 감안하여 재구성하였다(표 III-1 참조).

〈표 III-1〉 생활 양식 분석을 위한 조사 항목

활동	관심	의견
가사노동 및 일	가족	자신
취미, 여가	가정	사회문제
휴가	직업	정치
사교	의생활	경제
회원가입	식생활	교육
지역사회 참여	주생활	체품
구매	매체	미래
정보탐색	성취	전통문화
스포츠		

3) 가사노동 사회화

본 연구의 가사노동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가사 노동 사회화를 시장상품 및 유급의 용역 대체로 국한 시켰다.

또한 시장상품으로는 정 연주, 이 기영의 연구를 참조하여 저장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의 4개 항목), 아침 식사 대용식, 편의식품(밀반찬, 젓갈, 김치, 씨개거리, 냉동식품, 만두, 카레 및 짜장, 칼국수, 스프, 떡, 간식용 과자, 라면, 구이김, 햄 및 소세지, 생선 통조림의 15개 항목), 외식, 배달음식을 선정하였으며, 유급의 용역은 유급의 가사보조자 이용 실태를 통해 알아보았다.

한편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문항마다 사회화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고 이를 합산하여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의 점수로 하였다. 즉, 각 문항은 각 상품을 먹지 않거나 집에서 만드는 경우 0점,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하는 경우 1점, 거의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 2점을 주었다. 따라서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의 점수는 0점에서 46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주부나 1인 가정은 제외하였다.

본 조사는 1988년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으로는 초, 중, 고, 대학 1개교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과 가정학 전공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응답을 받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총 530부중 45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423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생활양식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일차적으로 바리맥스 지준율 (Varimax Criterion)에 따라 회전시켜 아이겐 값 (Eigen Value)이 1.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는데 그 수가 17개로 과다하여, 이차 분석을 통해 요인함유량이 낮은 요인 4를 제외한 16개 요인을 다시 7개 요인으로 재구성 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F검증, t검증 및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해 살펴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주부의 연령의 경우 30대가 40.2%로 가장 많고 40대가 35.2%로서, 약 75%가 30, 40대이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53.9%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족수는 4명이 34.3%로 가장 많고 5명이 27.4%로서 가족수 4~5명인 가족이 전체의 61.7%이며 가족형태별로는 81.8%가 핵가족이었다.

취업상태는 30%가 취업자이며, 70%가 취업을 하지 않았다.

가계소득은 81~100만원인 경우가 25.1%, 61~80만원이 2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53.4%, 연립주택이 9.3%로 집합주택의 형태가 많다.

2. 생활양식유형 분석

연구문제 1: 주부들의 생활양식은 어떤 유형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한 50개 문항을 1차 요인분석한 결과 1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표 IV-1), 이 17개의 요인을 2차 요인 분석한 결과 7개 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표 IV-2).

〈표 IV-1〉 각 요인별 문항과 요인 함유량

요인	문항	요인 함유량
1	7	0.64270
	16	0.60046
	23	0.59755
	41	0.56099
	13	0.47516
2	9	0.72044
	28	0.66967
	25	0.58066
	34	0.52757
	50	0.37727

2		0.34110
3		-0.45144
3	43	0.67368
	18	0.65181
	29	0.63953
	39	0.69680
	49	0.47360
4	40	0.46518
	38	0.42035
	17	0.28611
	31	0.69696
	6	0.64064
5	5	0.56167
	11	0.67210
	36	0.50332
	14	-0.61224
	10	0.62919
7	24	0.62602
	20	0.44473
	33	0.59962
8	32	0.59084
	8	0.57789
	12	0.79933
9	37	0.49912
	48	0.65687
10	42	0.56501
	27	0.47885
	15	0.69765
11	26	0.42801
	35	0.73625
12	45	0.46143
	21	0.65963
13	22	-0.49949
	1	0.59924
14	4	0.55591
	30	0.73389
15	19	0.33044
	47	0.74937
16	46	0.72994
	44	0.54299

〈표 IV-2〉 최종 요인별 요인합유량

최종 요인	1차 요인	요인 합유량
요인 I	2	0.74291
	15	0.60323
	11	0.46358
요인 II	3	0.73671
	5	0.68805
요인 III	9	0.79416
	13	0.63851
요인 IV	8	0.71643
	7	0.44586
요인 V	16	0.78585
	1	0.56388
	10	0.56144
요인 VI	14	0.82929
	12	0.44345
요인 VII	17	0.86088
	6	0.48402

이상의 7개 요인을 문항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1) 자기개발형

이 유형의 주부들은 야외스포츠 및 여행, 음악회등의 여가를 즐기고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크레디트 카드를 자주 사용하며, 아파트 거주의 편리성을 선호하며, 집안 일에 있어서도 가족원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여가를 추구하는 활동성을 보이나 그 관심사가 주로 자신의 발전 및 편의 도모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자기개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설문 번호	문 항 내 용
30	크레디트 카드를 자주 사용한다.
9	야외 스포츠를 즐긴다.
V15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더 좋다.
28	우리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여행을 더 많이 한다.
25	음악회, 미술 전람회, 연극, 영화 관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즐기는 편이다.

34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26	집안일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해내고 있다.
50	증권 투자를 하고 있다.
2	꽃꽂이, 서예, 분재,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19	공해 문제에 관심이 있다.
V 3	주말이나 공휴일에 밖에 나가기 보다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주 : V 표는 요인 분석시 역산되었던 것이므로, 역의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사회적 활동형

이 유형은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모임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강한 사회성을 보인다. 또한 각종 단체의 소비자 보호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보이며 현재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는 등 사회적인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는 외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설문 번호	문 항 내 용
31	주부클럽이나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보호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43	어떤 모임에서든지 의견을 발표하는 편이다.
18	다른 사람에게 소개될때 좀처럼 당황하지 않는 편이다.
6	동네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겠다.
29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선뜻 말을 전네는 편이다.
5	지역 봉사 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3) 현대주주의형

이 유형은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취업에 관심을 가지며 정치에도 관심을 보이는 진취성을 갖고 있다. 또한 자식의 진학 문제에 있어, 학과 또는 전공을 더 중시하는 실질적인 태도를 보인다.

설문 번호	문 항 내 용
12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라는 생각은 낡은 사고 방식이다.
V21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22	자식을 대학에 진학시킬 때, 학교보다는 학과(전공)를 중요시해야 한다.
37	주부들도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4) 건전·절약형

이들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신중성을 보이며, 소득 중 일부를 우선 저축하는 절약 태도를 갖으면서도, 장래 생활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가족의 생일에 선물을 잊지 않는 여유를 보이므로, 절약의 목적이 계획적이고 건전한 장래 설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전·절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설문 번호	문 항 내 용
10	가족의 생일에 작은 선물이라도 하는 편이다.
24	우리집의 생활 수준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33	물건을 살 때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한다.
32	작은 물건이라도 가격을 확인하는 편이다.
8	물건을 살 때 가능한 한 여러 상점을 둘러본다.
20	소득 중 일부를 우선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5) 변화 추구형

이 유형에 속하는 주부들은 생활에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러한 태도는 광고, 상품, 의상 등에 반영되어, 바겐세일 광고에 주목하며, 유명 상표를 선호하며, 의상에 많은 관심을 갖는 등 새로운 유행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여가를 지루하다고 느낀다.

또한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태도는 가치관에도 반영되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설문 번호	문 항 내 용
47	유명 상표가 제값을 한다.
48	나는 지금보다 변화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7	종종 충동 구매를 한다.

16	바겐 세일 광고를 주의 깊게 살핀다.
23	새 상품이 나오면 친구나 이웃보다 먼저 사는 경우가 많다.
42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인생에서의 성공의 척도이다.
41	내가 사는 물건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다.
27	나의 여가 시간은 지루할 때가 많다.
13	옷 입는 것에 관심이 많다.

6) 소극적 안정지향형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소극적이며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며, 해가족제나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구입 등 변화하는 사회적 추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한편,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계획성과 안정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 기존의 질서가 지속되는 것을 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극적 안정지향형이라 명명하였다.

설문 번호	문 항 내 용
V 35	해 가족제를 선호한다.
1	식사나 여러 일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편이다.
4	친구나 이웃과 어울리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V 45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구입은 안정적인 재산증식 방법이다.

7) 전통보수형

이 유형의 주부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즉, 인생에서 최대의 기쁨은 겨흔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중요한 일은 가장이 결정해야 하며 여성의 흡연에 반대하는 등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생활에서도 간편식을 이용하지 않는 반응을 볼 수 있다.

설문 번호	문 항 내 용
46	T.V는 자녀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11	인생에서 최대의 기쁨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다.
44	여성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36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장이 결정해야 한다.
V14	아침식사는 가급적 빵, 우유등 간편식으로 한다.

이상에서 명명된 각 생활양식유형에 속하는 주부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유형의 차이를 F검증, t검증한 결과, 생활양식유형은 가족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V-3).

이와같은 결과에 따라 각 생활양식유형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기개발형

이 유형에 속하는 주부들의 연령은 20대, 30대가 많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취업자가 많으며, 가족수는 3명 이하가 가장 많다. 가계소득은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소득수준이 매우 높다.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가 가장 많다.

즉,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아 자기 성취욕이 강하며, 가족수가 적으므로 가사 및 자녀 양육의 부담이 적어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며 높은 가계소득이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적 활동형

이 유형의 경우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징적인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집단이라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으로는 연령이 40대인 주부가 가장 많으며,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취업하지 않았으며, 가족수가 5명인 경우가 많고 소득수준은 고르지 않은 분포를 보인다.

3) 현대주의형

이 유형은 연령, 가족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자가 가장 많고 취업자가 많다. 가계소득은 40만원 이하가 가장 적고 그외에 소득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소득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집합주택 거주자가 많다.

따라서 이 유형의 주부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중·상층이며, 집합주택에 거주하여 취업한 경향을 보여, Reynolds의 연구 결과⁴³⁾ 취업 주부가 비취업 주부보다 진보적이라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4) 건전·절약형

이 유형의 경우, 연령과 가족수에 따른 차이만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20대인 주부가 가장 많으며 가족수는 3명 이하이다.

따라서 가정형성기에 있는 젊은 층의 주부들이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5) 변화 추구형

이 유형은 연령과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연령이 20대이며, 가계소득은 40만원 이하를 제외한 중·상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이며 아파트 거주자가 많다.

6) 소극적 안정지향형

이들은 취업 유무와 가족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연령상으로는 50대 이상이며, 교육수준이 고졸이나 중졸 이하로 낮다. 가족수는 5명 이상으로 많으며 가계소득은 최하층인 40만원 이하가 가장 많다. 또한 단독주택 거주자가 많다. 즉,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으며 소득수준이 하층인 집단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소극적인 기질뿐 아니라 고연령, 저학력, 저소득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 경미의 연구에서 유사한 유형인 소극침체형 또는 소극적 개인주의형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력이 약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7) 전통보수형

이 유형은 취업 유무, 가계소득, 가족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외에 연령이 40대, 50대 이상이며,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 가족수가 6명 이상이며, 단독주택 거주자

〈표IV-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양식 유형의 차이

(N = 423)

변수	생활양식유형		자기 개발형	사회적 활동형	현대 주의형	건전· 절약형	변화 추구형	소극적 안정지향형	전통 보수형
	구분	빈도							
주부의 연령	20대	58	2.95	2.79	3.58	3.98	3.21	2.70	3.14
	30대	170	2.81	2.79	3.58	3.79	2.96	2.79	3.48
	40대	149	2.53	2.92	3.54	3.73	2.89	2.88	3.70
	50대 이상	46	2.41	2.89	3.42	3.66	3.05	3.10	3.58
	F값		17.92***	1.56	0.87	5.80***	7.40***	5.44**	14.79***
주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8	2.12	2.82	3.36	3.71	2.92	2.88	3.84
	고졸	133	2.56	2.84	3.53	3.76	2.95	2.95	3.61
	대학이상	288	2.91	2.86	3.61	3.81	3.01	2.77	3.38
	F값		77.29***	0.13	4.42*	1.53	1.28	5.14**	18.98***
주부의 취업유무	취업	127	2.79	2.82	3.66	3.78	2.92	2.90	3.45
	비취업	296	2.64	2.86	3.50	3.78	3.01	2.82	3.55
	t값		2.49*	0.64	2.49*	0.03	1.82	1.29	1.65
가족수	3명 이하	79	2.85	2.75	3.62	3.94	2.75	3.15	
	4명	145	2.76	2.84	3.50	3.76	2.79	3.55	
	5명	116	2.62	2.89	3.58	3.75	2.98	2.89	3.60
	6명 이상	83	2.50	2.89	3.52	3.71	2.91	2.96	3.72
	F값		7.45***	1.22	0.91	4.57**	2.14	2.75*	16.54***
가계 소득	40만원 이하	32	2.20	2.65	3.11	3.74	2.69	3.03	3.74
	41~60만원	59	2.38	2.89	3.58	3.82	3.10	2.89	3.61
	61~80만원	87	2.67	2.86	3.62	3.79	2.96	2.75	3.52
	81~100만원	106	2.71	2.85	3.55	3.73	2.98	2.92	3.43
	101~150만원	83	2.86	2.76	3.64	3.83	2.97	2.80	3.53
	151만원 이상	56	3.03	2.99	3.50	3.77	3.07	2.75	3.46
	F값		18.37***	1.92	4.61***	0.60	3.75**	2.26*	1.93
주택 형태	단독주택	152	2.48	2.79	3.45	3.73	2.95	2.94	3.63
	아파트	218	2.87	2.85	3.61	3.78	3.03	2.75	3.42
	연합주택	38	2.58	3.01	3.64	3.92	2.87	2.91	3.59
	F값		27.37***	2.25	4.01*	2.82	2.61	6.52**	6.66**

*p<.05 **p<.01 ***p<.001

가 많다.

따라서,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가족 수가 많은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학력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전통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던 박 선영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3. 가사노동 사회학의 실태

연구문제 2: 가사노동 사회학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항목에 대한 사회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을 구한 결과 유급 가사보조자의 이용 정도에서 가정부의 고용율은 5.4%, 파출부 고용율은 15.1%로 나타나 선행 연구^{44,45)}와 비교할 때, 가정부의 고용 정도가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저장식품의 경우 40% 이상이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친지에게서 얻는 등 집에서 손수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화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IV-4).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저장식품의 경우 사회화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4〉 저장 식품의 사회화 정도 (N=423) %

	먹지 않는다 또는 집에서 만든다	친지에게서 얻는다	시장에서 구입한다	합계
메 주	26.9	58.9	14.2	100.0
조선간장	10.8	34.5	8.7	100.0
고추장	58.4	34.0	7.6	100.0
된장	55.6	36.6	7.8	100.0

반면 주식인 아침식사의 경우 64%가 대부분 밥을 먹는 것으로 나타나 대용식의 이용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편의식품 중에서는 간식용 과자 다음으로 햄, 소세지와 라면류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나 선행 연구^{46,47)}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김치, 쪽게거리, 밀반찬 등 반찬류의 이용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주로 집에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5-1〉 및 〈표 IV-5-2〉 참조).

〈표 IV-5-1〉 편의 식품의 사회화 정도 (N=423) %

	거의 먹지 않는다	1개월에 1~2회 정도 먹는다	1주일에 1~2회 이상 먹는다	합계
라면류	12.3	32.6	55.1	100.0
구이김	17.7	17.5	64.8	100.0
햄, 소세지	12.5	27.0	60.5	100.0
생선통조림	53.9	32.2	13.9	100.0

또한 가족 단위의 외식 및 배달음식의 경우 1개월에 1~2회 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41%, 44%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15%, 25%로 나타나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IV-5-2〉 편의 식품의 사회화 정도 (N=423) %

	먹지 않는다 또는 집에서 만든다	만들기도 하 고 사기도 한다	다 만들어진 것을 자주 산다	합계
밀반찬	74.2	25.1	0.7	100.0
젓갈	21.7	37.1	40.2	100.0
김치	96.4	3.1	0.5	100.0
쪽게거리	95.0	4.5	0.5	100.0
튀김육임 헌 냉동 식품	44.2	36.9	18.9	100.0
만두	27.4	40.9	31.7	100.0
카레, 짜장	49.7	26.0	24.3	100.0
칼국수	65.4	22.5	12.1	100.0
스프	39.7	22.7	37.6	100.0
떡	20.4	35.1	44.5	100.0
간식용과자	7.7	19.9	72.3	100.0

또한 추후의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가사노동 사회화의 총평균 점수를 구한 결과 19.45로서 모든 항목에서 사회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경우인 46점과 비교해 볼 때 사회화 정도는 중간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

연구문제 3: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생활양식유형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생활양식 유형이 각각 가사노동 사회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생활양식유형을 통해 가사노동 사회화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생활양식유형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생활 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회귀분석표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가사노동사회화
	B	β	
연령	-0.128	-0.174**	
가족수	0.323	0.068	
교육수준	0.984	0.145*	
가계소득	0.018	0.133**	
주택형태	0.469	0.037	
가족형태	2.582	0.162**	
취업유무	0.072	0.005	
자기개발형	1.013	0.089	
사회적활동형	-0.944	-0.088*	
변화추구형	2.510	0.194***	
전통보수형	-1.279	-0.121**	
constant	11.521		
R ²	.237		

*p<.05. **p<.01. ***p<.001.

인구통계학적 변수중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족형태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족형태가 핵가족일때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가 높았다.

즉, 젊은층의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해되, 이기영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연주, 이기영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사회화 정도가 높은 결과는 강정옥, 한경선, 정연주, 이기영과 유사한 결과로서 가계소득이 높을때 가사노동 사회화를 위한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금전자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때문이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가족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한 학대가족의 경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가사노동에 의해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화 정도가 낮으며 따라서 핵가족의 사회화가 더 높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생활양식유형중, 가사노동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사회적 활동형, 변화추구형, 전통보수형이며 사회적 활동형과 전통보수형의 경우 사회화 정도가 낮고 변화추구형의 경우 사회화 정도가 높았다.

즉, 사회적 활동형은 매사에 적극적인 성향으로 인해 가사노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전통보수형은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 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 또한 스스로 수행하려하며 가사노동 사회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변화지향적이며 새로운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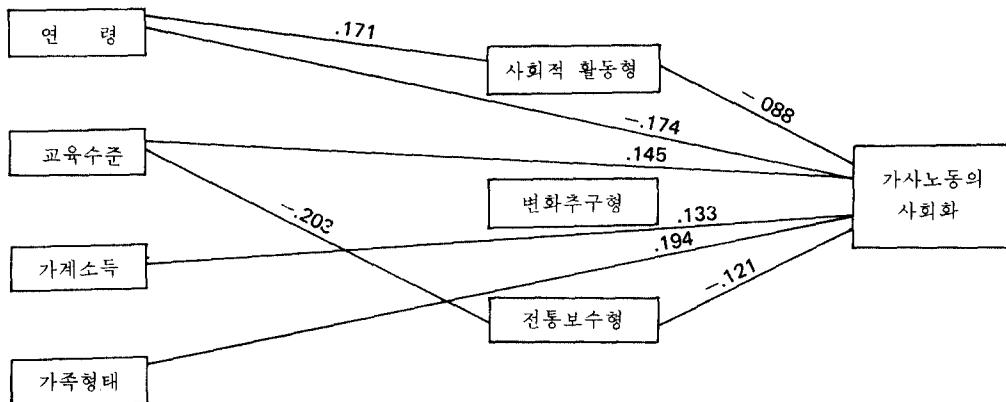
〈표 IV-7〉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생활양식 유형이 가사노동 사회화에 미치는 인과적·비인과적 효과 및 총체적 관계

변수	총체적 관계	인과적 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연령	-0.2752	-0.1740	(-0.0150) ^{주1} -0.0571	-0.2311	-0.0441
교육수준	0.3148	0.1448	(0.0245) ^{주2} 0.0502	0.1950	0.1198
가계소득	0.2383	0.1334	0.0357	0.1691	0.0692
가족형태	0.0965	0.1622	-0.0084	0.1538	-0.0573
사회적활동형	-0.0834	-0.0881		-0.0881	0.0047
변화추구형	0.2649	0.1937		0.1937	0.0712
전통보수형	-0.2394	-0.1210		0.1210	-0.1184

주1: 총 간접효과 중 사회적 활동형을 통한 간접효과

주2: 총 간접효과 중 전통보수형을 통한 간접효과.

〈그림 IV-1〉



및 광고에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변화추구형의 주부들은 사회화를 도모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민감하며 이를 통해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수중 연령, 교육수준, 가계 소득, 가족형태가 생활양식유형 변수를 통해 가사노동 사회화에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과 교육수준이다 (〈그림 IV-1〉 및 〈표 IV-7〉 참조).

즉,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적 활동형에 속하며, 이러한 생활양식유형으로 인해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가 낮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전통보수형의 성향을 보이며 따라서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가 낮게 이루어진다. 이와같은 결과는 연령이 많고 사회적 활동형에 속하는 주부들은 매사에 적극적인 성향으로 가사노동 또한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갖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전통보수형의 주부들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가사노동 사회화에 부정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연령 및 교육수준의 간접적인 영향력은 각각 -0.0150 , 0.0245 였다.

이상의 경로분석 결과에서 볼때, 가사노동 사회화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생활양식유형 변수가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변

수가 생활양식유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따라서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은 가사노동 사회화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구체적인 가정관리행동인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냄으로써 바람직한 가정관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423부의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 F검증, t검증, 경로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주부들의 생활양식은 7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을 자기개발형, 사회적 활동형, 현대주의형, 건전·절약형, 변화추구형, 소극적 안전지향형, 전통보수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생활양식유형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중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 유무, 가족수, 가계소득, 주택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는 종류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나 총평균은 19.45로서 중간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생활양식유형이 가사 노동 사회화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인구 통계학적 변수중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족형태가, 생활양식유형중 사회적 활동형, 변화추구형, 전통보수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양식유형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연령과 교육수준이었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볼 때 가사노동 사회화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뿐 아니라 생활양식유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매개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 사회화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가정관리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차원의 변수들을 통해 가정 관리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한 가정관리 방법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가사노동 사회화에 따라 가사노동을 간소화·능률화시키고 따라서 주부의 자유 시간을 증대시켜 취업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노동력과 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계의 부담이 커지며 가정의 개성 및 가족생활의 공동성이 분산되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각 가정은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가사노동 사회화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주어진 선택의 가능성 중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능력의 개발을 위해 생애교육의 차원에서 끊임없는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생활양식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생활양식의 요인의 유형화에 그쳤을 뿐,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양식을 유형화하지 못했으며, 또한 가사노동 사회화를 식생활 분야의 시장 상품과 가사 보조자의 이용으로 국한시켰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양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과 이를 통해 가사노동 및 가정관리행동을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차옥, 우리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3, p. 19.
2. Ivan F. Beutler & Alma J Owen, "The Household Production: A Cultural & Cross-National View", *The Household as Producer*, 1979, pp. 16-17.
3. Margaret G. Reid, *Economics of Household Produc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34, p. 11.
4. G.A. Kelly,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vol. 1, 1955, p. 56.
5. A. Adler, *The Science of Living*, Anchor Book, ed 를 김혜연,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 관리 행동의 분석,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6, p. 6에서 재인용.
6. Lazer, W., *Life Style Concepts & Marketing, Toward Scientific Marketing*, ed. S.A. Greyser, Chicago: AMA, 1963, pp. 130-139.
7. Moore, D., *Life Style in Mobile Suburbia*, 1963, p. 14를 박선영, 주부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 분석과 관련 벤인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86, p. 6에서 재인용.
8. Levy, *Symbolism & Life Style*, 1963, p. 14를 박선영, 전계서, p. 6에서 재인용.
9. Coleman, J.C., *Abnormal Psychology & Modern Life*, 3rd, ed. 1964, p. 63.
10. 김동기, 현대마아케팅 원론, 서울: 박영사, 1982, pp. 188-190.
11. J.T. Plummer, *The Concept & Application of the Life Style Segmentation*, J. of marketing, vol 38, 1974, p. 34.
12. W.D. Wells & Tigers, *Activities, Interests*

- and Opinions, J. of Advertising Research, vol 11, 1971, pp. 27-35.
13. Margret G. Reid, 전계서, p. 11.
14. Ivan F. Beutler & Alma J. Owen, 전계서 pp. 16-17
15. Egner, Entwicklungsphasen der Hanswirtschafts and Sozi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 1, S. 1964를 이기영,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본 가사노동의 의의와 그 전개, 고대 사대논집, 제6호, 1981, p. 209에서 재인용
16. 大林和子, 家事勞動と動向, 日本家政學會誌, No.1, 1982, pp. 219-222를 문숙재·채옥희,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1986, pp. 205-206에서 재인용.
17. 문숙재, 문화가 가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3호, 1980, pp. 21-28.
18. 문숙재·채옥희, 전계서, p. 53.
19. Ivan F. Beutler & Alma J. Owen, 전계서 pp. 21-22.
20. 이기영, 전계서, p. 41.
21. 이기영, 전계서, p. 64.
22. 이기영, 전계서, p. 61.
23. 정연주,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6, p 16.
24. 문숙재·채옥희, 전계서, p. 209
25. Engel, J.F. Blackwell, R.D. & Kollat, D.T. Consumer Behavior 3rd, ed. Hinsdale Illinois; Dryden Press, 1978, p. 174.
26. Reynolds, F.D, M.R. Crask, and W.D. Wells, The Modern Feminine Life Style, J. of Marketing, July, 1977, pp. 38-45.
27. 이차옥, 전계서.
28. 한인자, 소비자 행동 분석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3.
29. 오명렬, 광고 및 매스미디어 선택에 있어서 라이프 스타일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83.
30. 한귀석, 도시주부의 라이프 스타일과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82.
31. 박선영, 전계서.
32. 김경미, 도시주부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1986
33. 김혜연, 전계서.
34. Karen Goebel and Charles B. Henn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J.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vol. 6, 1978, pp. 63-78.
35. Carol B Volkner, Mary winter and Ivan F. Beutler, Household Production of food: Expenditures Norms and Satisfaction, HERJ, vol. 11, No. 3, 1983, p. 277.
36. Don Bellante and A.C. Foster,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s on Servies, J. of Consumer Research, vol. 11, September, 1984, pp. 702-706.
37. 이영분, 주택 형태에 따른 도시 주부들의 식품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38. 이혜옥, 개인의 가치관과 식생활과의 관계 분석, 이대 석사학위 논문, 1984.
39. 강정옥,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실태조사 ; 식생활을 중심으로,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 1984.
40. 정연주, 전계서.
41. 이기영, 전계서.
42. 김혜연, 전계서.
43. Reynolds, F.D. 외, 전계서.
44. 강정옥, 전계서.
45. 신경주, 가사노동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 연구, 한양대 생활과학 연구소, 1985, 3.
46. 정연주, 전계서.
47. 한경선, 국가정의 일상식의 구조와 그 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86.